

로어문장에서 행동의 주체가 여격에 놓인 반피동구조들에 대한 분석

허 철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교육의 내용을 잘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외국어지식을 풍부하게 줄뿐만아니라 그것을 원리적으로도 깊이있게 가르칠수 있도록 꾸려져야 합니다.》

현시기 외국어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각이한 문장구조에 대한 원리적인 지식을 습득시켜 그들이 언어실천에 옹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어에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문장구조에서 행동의 주체가 여격에 놓이면서 행동수행과정을 나타내는 특수한 문장구조들이 있다.

행동의 주체가 여격에 놓인 반피동구조를 네가지로 찾아볼수 있다.

행동의 주체가 여격에 놓인 반피동구조에는 우선 《명사여격+ся동사》구조가 있다.

이 구조는 단일결합동사(명사주격+동사) 또는 2중결합동사(명사주격+동사+명사사격(대격 제외), 명사주격+동사+문장)들이 들어있는 핵심주격문장의 변형으로 볼수 있다.

례: Я не сплю ⇒ Мне не спится.(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Я не верю этому ⇒ Мне не верится этому.(나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Я думаю, что ⇒ Мне думается, что.(…이라고 나는 생각된다.)

이러한 류형의 반피동구조에서 쓰일수 있는 동사들의 부류에는 행동, 상태, 희망, 사고과정을 의미하는 일부 동사들만이 속한다.

례: 행동을 의미하는것 — Мне не работается.(나는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상태를 의미하는것 — Мне не спится.(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사유과정을 의미하는것 — Мне не верится.(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희망을 의미하는것 — Мне хочется...(나는 ...하고싶다.)

반피동구조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동사들이 다 리용되는것은 아니며 그 수는 제한되어있다.

로어반피동구조에서 명사여격에 놓이는 명사들로는 활동체명사로서 의인화된 명사(동물을 의미하는 명사도 포함)가 포함된다.

반피동구조에서는 비활동체명사가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질부사(хорошо, плохо)가 없는 긍정문이 반피동구조로 드물게 쓰인다.

《명사주격+동사+(명사사격, 문장)》구조에 비해볼 때 《명사여격+ся동사+(명사사격, 문장)》구조들에서는 주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약화되며 행동은 그의 요구밖에서 진행되게 된다.

주격구조와 반피동구조들은 두 측면에서 대립되어있다. 즉 대응관계표식이 없는 주격구조는 주체의 적극성 또는 소극성의 징표를 나타내지 않으며 문맥적으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피동구조에서 행동의 주체는 항상 표현되며 문맥에서 한가지 의미로만 쓰인다.

로어문장에서 반피동구조들의 조성은 동사의 타동성이나 자동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다.

로어문장에서 능동상이 피동상으로 변환될 때 주체는 조격에 놓이지만 능동상이 반

피동상으로 변환될 때에는 여격에 놓인 명사로 표현된다.

이때 행동의 주체가 여격으로 표현되면 주체의 행동이 소극화된다는것을 시사해준다.

모든 반피동구조들은 거기에 알맞는 주격구조들을 다 가지고있는것은 아니며 만일 반피동구조들이 주격구조들과 의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주격구조의 변형으로 볼수 없다.

반피동구조들에 쓰이는 일부 동사들(хотеться, вздуматься)은 미정형과 결합할수 있다.

행동의 주체가 여격에 놓인 반피동구조에는 또한 《명사여격+ся동사+명사주격(문장)》구조가 있다.

이 구조를 《명사주격+동사+명사대격》구조와 의미적으로 대비하여보면 차이나는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들은 주체의 적극성이 표현되는가 표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대립의 대응관계표식이 있는 성분으로 되어 행동주체의 소극화를 알수 있게 해준다. 즉 행동이 주체의 의지 또는 의미적제약을 받음이 없이 실현된다.

문맥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는 반피동구조 《명사여격+ся동사+명사주격(문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들에서 나타난다.

첫째로, 타동사들 즉 대격과 결합되는 동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둘째로, 핵심구조에서 주격이 의인화된 명사로 표현되는 때에만 변형이 이루어진다.

대격에 놓인 명사는 임의의 의미적부류의 명사로 표현될수 있다.

셋째로, 감수를 의미하는 동사들과 심리적과정을 의미하는 동사들을 가진 구조들이 반피동구조로 변형될수 있다.

례: Уже в то время мне полюбились песни. ← Я полюбила песни. (그때 벌써 나는 노래를 사랑하였다.)

Ей вспомнился муж, который считал, что слезы — это мещанство. ← Она вспомнила мужа, …(그 녀자는 눈물, 이것은 의지가 약한 표현이라고 한 남편의 말이 생각났다.)

여기에는 선택적으로 조격과 결합되는 동사인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와 전치사 《о+전치격》과 결합되는 동사인 《мечтать》도 속한다.

례: До сих пор Ардик представлялся ему таким, каким он видел его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 До сих пор он представлял себе Ардика таким, …(지금까지 그는 아르지크를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 생각하고있다.)

Помощь от кого — нибудь ему и не мечталась во сне.←О помощи от кого — нибудь он и не мечтал, …(그는 그 누구한테서도 방조를 받으려고 꿈에서도 생각지 않았다.)

감수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포함한 반피동변형구조들은 문맥적인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의식적인 통제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할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행동을 의미할수 있다.

이때 감수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의미는 동사 чудиться, мерещиться의 의미와 유사하다.

이러한 부류에는 다음과 같은 반피동형구조들이 있다.

례: — 주격구조의 비재귀동사가 변형구조에 있는 재귀동사와 의미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
Мне почудилось.(나는 …것 같다.) ← Я почудил.(나는 어리석은짓을 하였다.)

- 접두사를 가진 동사들이 채귀동사들로만 나타날수 있는 경우

Мне слышались шаги. ← Я слышал шаги.(나는 발걸음소리를 들었다.)

- 채귀동사들이 변형체의 성분으로만 되는 경우

Мне снится, мне мерещится...(나는 잠에 든다. 나는...라고 생각된다.)

반피동변형구조들에 동사 нравиться가 있는 구조들도 포함시킬수 있다.

주격에 놓인 의인화된 명사가 자주 쓰이고 양태동사에 의하여 구조들이 확대되며 소극화의 반피동적의미가 상실될수 있다는것은 이 구조가 핵심주격문장으로 이행할수도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여격에 놓인 명사가 표현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가능성(Женя хочет нравиться.-제가나는 마음에 들고싶어한다.)을 보여준다.

행동의 주체가 여격에 놓인 반피동구조에는 또한 미정형구조가 있다.

실례로 《Мне сегодня выступать на собрании.(나는 오늘 회의에 참가할것이다.)》와 같은 미정형문장들은 변형된 단어가 없이 변화된 구조로 볼수 있다.

로어미정형구조들은 그 의미상 동사로 표현된 행동의 여러가지 양태적색채를 표현한다. 즉 희망, 의혹, 명령, 충고, 필요성, 불가피성 등 행동에 대한 양태성을 나타낸다.

로어미정형구조들에서는 결합능력을 가지지 않는 동사들뿐아니라 임의의 격과 결합되는 동사들도 나타날수 있다.

행동의 주체가 여격에 놓인것은 주체의 소극화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모든 구조의 양태적의미와 련관되어있다.

로어미정형구조에서 행동은 일반적으로 주체의 의지와는 관련되지 않거나 주체가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정형은 법의 임의의 기능을 표현할수 있는 형태로서 그것이 직설법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여격에 놓인 주체의 사용을 예측할수 있게 해준다.

미정형은 직설법의 의미를 나타낼 때 주격형태와 결합된다. 미정형구조들에서 여러가지 양태적색채가 나타나는것은 여격에 놓인 주체의 표현에 달려있다.

앞으로 잠재적으로 실현되게 될 비현실적인 행동은 단순미래 또는 합성미래형태에 놓인 끝맺음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가진 구조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로어미정형문장들은 행동의 불가피성, 행동수행의 불가능성, 행동의 필요성이나 혹은 불필요성과 같은 경우들을 표현한다.

례: Быть грозе. ← Будет гроза.(행동의 불가피성) (소낙비가 올것이다.)

В Москве простому смертному севанской форели не поесть.(행동수행의 불가능성) (모스크바에서 보통사람은 세완호의 칠색송어를 먹지 못한다.)

Много тебе ещё странствовать.(행동의 필요성 혹은 불필요성) (너는 아직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

명령 또는 공식적인 지시를 표현하는 미정형문장들은 미정형형태와 호상관계를 가진다.

더 전개되지 않는 동사들로만 표현된 엄격한 명령에서는 행동의 주체가 표현되지 않는다.

충고 또는 희망은 미정형에 조사 бы를 붙이는 방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류형의 미정형구조들은 조건법에 놓인 동사가 있는 구조들과 호상관계를 가진다. 즉 미정형이 있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조건법에 놓인 동사가 있는 구조들도 결국은

직설법에 놓인 동사가 있는 핵심구조의 변형으로 볼수 있다.

로어미정형문장들은 의혹의 의미를 자아내는 기능으로 자주 쓰인다.

로어에서 의혹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들로는 존재동사들이 있는 문장들이나 혹은 그 어떤 양태적단어에 의하여 확대된 문장들이 있는 경우들을 들수 있다.

레: Этим что ли стрелять мне? -- Этим я могу стрелять?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쓸수 있는가?)

Как ей тягаться со мною? -- Как она может тягаться со мною?

(어떻게 그가 나와 경쟁할수 있는가?)

행동의 주체가 여격에 놓인 반피동구조에는 또한 양태적동사들을 가진 구조들이 있다.

《Мне пришлось уйти.(나는 떠나야 한다.)》, 《Мне следует уйти.(나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에서와 같이 로어양태동사들은 핵심문장들을 전개하고 변형시키면서 주체의 여격과 결합된다.

이러한 양태동사들로는 приходится, полагаться, доводиться, удаться, предстоять, пристать, следовать 등을 들수 있다.

주격문장류형에 대하여 볼 때 주체의 여격을 가진 구조들은 주체의 소극성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대립의 대응관계를 표현하는 성분으로 되면서 주체의 소극화를 시사해주며 한편 주격문장들은 주체의 적극성과 소극성의 표식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것은 반피동구조뿐아니라 미정형구조들과 양태동사들을 가진 구조들에 관계되는데 여기에서 동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행동의 여러가지 색채들은 행동실천에서 주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화시킨다.

우리는 앞으로 로어의 특수한 현상들에 대한 과학리론적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풍부한 로어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